

만남

2019년 3월
통권 170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꿈꾸는 시간, 봄-----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4
그리스도인의 유머	-----	7
교리	사회교리의 이해-----	8
기도 소개	화해와 용서를 위한 기도-----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3월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권리 인정

그리스도교 공동체, 특히 박해받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끼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꿈꾸는 시간, 봄

사람들은 긴 겨울을 지나고 나면 늘 봄을 꿈꿉니다. 그런데 겨울이 겨울답지 않았다면 봄을 꿈꾸는 의미도 그만큼 퇴색될 수밖에 없겠지요. 봄은 모든 것이 다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땅 속에서 겨울을 보낸 생명의 기운이 이제 세상을 향해 수줍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 앙상하게 가지들만 보여주던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푸른 꿈을 꾸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봄에 예수님의 부활 또한 자리 잡고 있다는 건 결코 우연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순이라는 겨울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40일이어서 사순이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가시밭길을 생각한다면 그리 녹녹치 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은 부활을 향한 여정에서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치 겨울을 지나야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활만 생각하는 신앙이 좋기는 하겠지만 긴장감은 없습니다. 좋은 것만 누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터널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겨울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봄을 꿈꾸는 마음이 더 없이 행복하듯 사순이라는 회개와 정화의 시간이 있었기에 부활은 값진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사순시기에는 새로운 결심을 다집니다. 그것 역시 겨울을 보내기 위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사막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사순시기는 어쩌면 치장하지 않는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느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은 행여 아닐는지요?

햇별은 점점 더 자신의 온기를 되찾아 갈 것이고, 대지는 점점 더 형형색색의 빛으로 찬란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봄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취해 봄을 꿈꿉니다. 봄을 꿈꿀 여유조차 없는 사람도 봄의 그런 모습에 잠시 눈길이 머물습니다. 신앙의 봄인 부활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름다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고 감동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활을 통해 더없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부활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조차 잠시 멈추어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이 봄을 향하는 저의 마음이고 다짐입니다. 봄을 꿈꾸되 겨울의 긴 터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기쁨을 살아가되 희생과 고통도 따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올해의 봄을 맞이하는 저의 자세입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루카 4,1-13)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24장 “은혜로운 회개의 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4 1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 2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 3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하고 말하였다.
- 4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 6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 4 6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오.
 7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오.”
 8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9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10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11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12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13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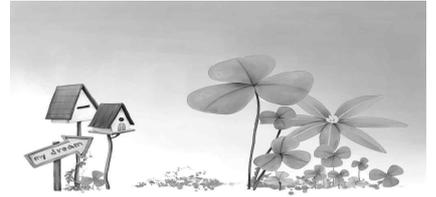
✱ 악마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능력 밖의 것들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
 리가 겪는 유혹들과 그 유혹들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까?

✱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유혹의 장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
 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법 같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하늘에 뽕뽕 떠다니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까닭은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훔쳐 갔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오직 넘치는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그러한 감정에 신명이 난다면, 그것은 단지 사랑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관계가 진전되면서, 당신은 사랑이 따뜻한 감정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에는 또한 책임이 따르며, 다른 힘든 일도 해야만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당신은 사랑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관계의 진전이 가로막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에게만 의지해 온 나이 든 부모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당신이 사랑의 더욱 충만한 의미를 받아들여 이타적 헌신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광야로 가시어 거기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유혹도 가지가지이지만, 그 모든 유혹은 우리를 “끝까지”(요한 13,1)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헌신을 흐트러 놓으려는 똑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 발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할지 가르쳐 주시도록 간청해 봅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24장 “은혜로운 회개의 때”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사과나무 한 그루

성당 정원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주렁주렁 열려서 신부님은 아침저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해하며 하루 날을 잡아 한꺼번에 따서 파티를 해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사과가 몽땅 없어졌더랍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사과나무에 이렇게 써서 매달아 두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쓴 종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7. 십계명과 사회교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통용되는 윤리규범을 만들며, 이를 실천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선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항상 올바른 규정과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을 일컬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법 없이 살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어린이였습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습관에 길들어 지금도 교통신호를 철저히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주변에는 윤리규범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중도덕을 지키거나 양심적인 일을 하는 것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자라고 교육받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윤리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윤리규범이 필요합니다. 만일 가톨릭교회에서 제정된 윤리규범이 인류의 보편적 윤리관과 정반대의 것이라면 더 이상 교회의 윤리관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윤리규범 역시 인류의 공통 윤리규범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윤리규범의 보편성은 이미 성경을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선택된 민족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집트 탈출 후 모세를 통해 하느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바로 시나이 산의 십계명 사건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느님과 지켜야 할 기본적 계명을 계약으로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어느 조항 하나도 인류의 윤리규범과 충돌되거나 배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윤리규범으로서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인 <간추린 사회교리>는 십계명의 윤리적 보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삶의 훌륭한 지침이며 죄의 연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자연법을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다. 십계명은 보편적인 인간 윤리를 설명한다.”(22항). 또한 이 십계명은 인간 사회의 상호 관계성에 주목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권리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세상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8. 사랑의 계명

하느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은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강생 구속 사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느님을 만나 뵈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와 동떨어져 멀리 천상세계에 계시는 분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삶을 직접 사셨던 것입니다. 이 구원사건을 통해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삶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을 통해 하느님을 직접적이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왕이요, 구원자로 오셨지만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 함께 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 역사 안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하느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완전하게 드러난다. … 예수님께서서는 말씀과 행동으로, 그리고 완전하고 결정적으로는 당신 죽음과 부활로써 인류에게 하느님께서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 성령의 힘으로 은총을 통해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따라서 우리 서로 형제자매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계시하신다.”(<간추린 사회교리> 31항).

더 나아가 하느님께서서는 인간 상호 간에도 당신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십니다. 새로운 하느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인간은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인간 상호 간의 관계성을 정확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구속 사건을 통해 인류 전체에 대한 보편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간추린 사회교리> 33, 38항 참조).

9. 교회

초기 그리스도교 시절부터 교회는 신자를 교육할 목적으로 성당 내에 수많은 벽화를 그려 장식했습니다. 예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교리를 교육할 목적이었습니다. 작품 대부분은 성경의 여러 이야기나 성인들의 삶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문자를 아는 이들은 소수 지배계층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술 작품과 음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전까지 미술, 음악, 건축 등 대부분의 중세 예술 작품은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성전을 꾸미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부분만 아니라 개개인의 영적인 차원까지도 배려한 꼼꼼한 조치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밖에서도 즐길 거리가 많은 사회 안에서는 교회라는 공간적 장소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곳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형제자매들이 모여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며,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오늘날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성적 차원의 필요성은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상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과 깊이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 분리시킨 채 살아갈 수 없으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인 것과 세상의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머무시는 구체적인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추상적이거나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 세상과 역사의 구체적인 상황 안에 함께 존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협력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간추린 사회교리> 60항 참조).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교회의 사회적인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를 위한 기도(작가미상)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비난을 받는 죄 많은 여인에게,
자기 스스로도 죄가 많아
용서받을 수조차 없다고 낙심한 여인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신 당신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으로
죄 많은 여인의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씻으며 향유를 붓는
용서 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여인이 죄에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아름다운 만남이
오늘 저의 삶 안에서 소복소복 쌓이게 하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화해와 용서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주시는 용서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달아
환하게 미소 지으며 살게 하소서.



질문

제 아들은 수도자가 되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격한 봉쇄 관상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전을 비롯한 수도생활에 대한 책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엄격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날이 갈수록 자기 몸을 거의 돌보지 않아 건강을 해칠 정도가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 이제 몸을 좀 돌보라고 하면 아들은 복음을 인용하면서 저를 나무랍니다. 아들이 잘 인용하는 대목은 마태오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아들이 성경구절을 들이대면서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데는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어미 된 사람으로서 아들의 지나친 금욕주의적 삶을 말리고 싶습니다. 아들이 엄격한 삶을 살수록 가족들과의 대화도 세속적이라고 기피하고, 작은 일에 짜증도 잘 냅니다. 웬지 아들의 이런 삶이 뭔가 아니란 생각은 드는데 제가 학문이 깊지 않아 뭐라 말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얼핏 들어보면 몸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 수도원에서는 성경의 이 말씀에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스토아학과 생각마저 얹어 아주 혹독한 수도생활을 하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니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수치스런 짓이라 여겨서 옷은 념마 같은 것으로 일 년 열두 달 입고 잠자리는 마구간 같은 곳에서 자는 아주 엄격한 수도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수시로 자다 깨서 기도하는 시과경까지 바치고 심지어 어떤 수도자는 음식을 탐하지 않으려고 자기 밥에다 재를 뿌린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성향은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 하나의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 그 바람에 곤욕을 치르는 것이 본당신부들이었습니다. 새로운 본당 신부가 몸집이 좋고 혈색이 좋으면 ‘기도생활 안 하는 신부’라고 비아냥거리고, 새 옷을 입기만 하면 ‘무슨 신부가 그리 부자들 흉내를 내느냐?’고 핀잔을 줘서 당혹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몸의 병은 떠나질 않아서 많은 열심인 성직자와 수도자, 신자들이 일찍 세상

을 떠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 주위 사람들을 더 당혹하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몸에 대해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몸을 대화적 대상이 아닌 물적 대상으로 여기는 풍조가 질병을 불러온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건강관리에 지나친 관심을 보입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 상당수가 건강식품과 건강의약품 등에 대한 것들입니다. 또 건강관리를 위해 걷고 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질병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몸을 혹독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과 현대 사회가 지나치게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몸을 물적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처럼 대화 대상이 아니라 무슨 기계나 혹은 귀찮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몸은 학대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며, 단순히 먹이고 입히기만 하면 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몸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영민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몸을 물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몸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건전한 신체는 건전한 정신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역으로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신체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몸과 마음이 이원적 관계가 아니라 일원적 관계 즉, 몸과 마음이 연계성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을 잘 살피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춘이 잘되면 배가 아프다.’ ‘화가 나면 머리가 아프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슴이 벌렁거린다.’ 등등 몸은 마음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그것을 몸으로 느끼는 순환고리를 갖습니다. 주님은 몸의 이런 중요성을 잘 아셨기에 늘 병자들 몸을 고쳐주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영성가들이 영혼은 하느님이 머무시는 성전이고 몸은 그런 영혼이 머무는 성전이라고 하면서 몸의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몸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하는 조강지처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평생 동반자인 몸을 단순한 물적 대상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혐오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복음적 정신에 어긋납니다. 자매님은 아드님에게 이런 취지를 말씀해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조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10주기를 맞이하여(김진호 프란치스코)

아침에 일어나면 버릇처럼 달력을 쳐다보게 된다. 우리 집 달력에는 그날, 그날 특별히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달력 위 오른쪽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빙긋이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저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은 달력 맨 위 왼쪽에 자필로 써놓으셨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가끔씩 들어본 말씀이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특별히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간직하고 싶다.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기에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서는 2009년 2월16일 당년 88세의 연세로 우리들의 곁을 떠나셨다.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시던 날은 무섭게 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명동성당 인근거리마다 골목마다 조문객들의 물결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온다.

우리나라 전 대통령들과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총수들 사회단체장 그리고 종교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수십만의 국민들이 명동성당에서부터 남산터널까지 긴 줄을 이어 분향소까지는 3~4시간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날 같은 추위를 견디면서도 조문객들의 행렬은 끝이 없었던 그날의 광경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러니까 오늘이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10주기가 되는 날인데 우연히 내가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느끼는 순간 많은 것들이 생각난다.

김수환 추기경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소탈하시고 겸손하시며 상냥하시고 인자하시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편에서 사랑을 실천하셨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분으로 기억한다.

더 생각나게 하는 것은 모임에 가시면 노사연의 만남과 애모라는 노래를 즐겨 부르시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인기를 독차지하시던 추기경님이 생각난다.

추기경님께서서는 1921년 김영섭(요셉) 아버님과 서중하(마르티나) 어머니의 5남 3녀 중 막내로 경상북도 군위군 시골마을에서 태어나셨다. 추기경님께서서는 1951년도에 사제서품을 받으시고, 안동성당 주임신부님을 시작으로 53년 대구교구에서 55년 김천성당 주임신부 겸 성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

으로 계시다가 독일유학을 마치고, 66년 마산교구장님으로 68년 서울 대교구장님으로 1년 후 6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추기경님으로 선임되시어 온 국민과 천주교인들의 축하와 대환영을 받으셨다.

추기경님께서서는 한국 순교자들의 은총으로 자신이 추기경이 되었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세계 134분의 추기경님 중에서 제일 젊으신 추기경님이셨다. 젊은 김수환 추기경님께서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정치와 전두환 대통령의 5.18사태 등 김영삼, 노태우, 김대중 대통령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국민들의 안위를 보살피는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편에서 언제나 용감하고 거룩하신 참 지도자이셨다는 것도 자랑하고 싶다.

우리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멀어져만 가는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오늘 저를 영감으로 불러주셨다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부족한 글로나마 기억해보는 추억의 시간을 가져본다.

오늘 추기경님의 선종 10주기를 맞아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평화의 안식과 천상의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한다!

2019년 2월 16일



❖ 3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요안나	김주영	9일	카타리나	오경은
3일	가밀라 (St. Camilla)	허(이)명자	19일	요셉 (St. Joseph)	이현묵 한규호

❖ 3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9일	카타리나	박미량(H)	19일	요셉 (St. Joseph)	문지서(H) 이재홍(O)
12일	세라피나	김보경(H)			
13일	살롬	현우(H)			



❖ 3월 성가번호 ❖

3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3일	280	211	178	460
10일	490	115	154	489
17일	72	513	165	124
24일	찬 양 미 사			
31일	123	218	151	281

❖ 3월 미사 전례 봉사자 ❖

3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3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2구역
6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10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주일학교	3구역
17일	이정훈(요나스) 김한솔나(리드비나)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청년회	4구역
24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김잔디(아그네스) 김경미(이사벨라)	주일학교	청년회
31일	정명옥(살로메) 김매자(베로니카)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데타)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요셉 마리아회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월 27일	2월 3일	2월 10일	2월 17일
주일헌금	241.81	317.00	279.83	247.00
헌납금	80	530	70	140
구좌입금	1월 22일부터 2월 17일까지 총 290.00 * 헌납금 합계 1,110.00			

❖ 자진헌납금 ❖

2019년 1월 22일 - 2019년 2월 17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 현금납부 :

현영애, 최순남, 배성우, 윤석순, 김경미, 김건, 김효정,
 최장용, 방은일, 이수웅, 진윤희, 신옥희, 서세원, 황영선,
 이종하, 이정수, 강순행, 손수희, 우동천, 이공종, 김민옥,

◆ 구좌입금 :

이영희 Eggerstedt, 김진호, 이상봉, 권지연 Rabe, 이성원,
 박준병, 허두욱, 이정훈, 이명원, 정정숙, 김치수, 최현봉,
 허길조, 이석우, 홍경영, 김대현, 남궁춘배,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3월 중에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시기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때에는 더 없이 큰 은총과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2. 3월 2일 주일미사 후에는 사목월례회가 있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저녁 미사 후에는 믿음의 샘 꾸리아 월례회가 있습니다.
3. 3월 6일 재의 수요일에는 저녁 19시에 만남성당 강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전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며 머리에 재를 얹는, 의미 깊은 이 예식에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3월 8일 금요일에는 2구역 소공동체 모임, 10일 일요일에는 청년 소공동체 모임, 3월 13일 수요일에는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모임, 3월 22일 금요일에는 4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5. 3월 23일 토요일 15시, 만남성당에서는 꾸리아가 주관하는 아치에스 행사가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뿐만 아니라 협조단원들도 함께 레지오 봉헌 사열식(아치에스)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3월 24일 일요일 주일미사는 찬양미사로 봉헌합니다. 그리고 3월 25일은 월요일이지만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기 때문에 19시에 만남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7. 3월 28일 목요일에는 연령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8.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당신부님은 노르웨이 오슬로 공동체를 다녀오십니다. 오슬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 미리 알려드립니다. 4월 5일(금)부터 4월 7일(일)까지는 교환사목으로 에센 신부님께서 오십니다. 본당신부님은 에센으로 가십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지난 2월 미사는 2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하였습니다.
3. 지난 2월 19일에 저희 공동체는 Rheine 에 있는 St. Antonius 성당을 방문하고 Krippe(다른 Krippe와는 달리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있는 특별한)를 순례했습니다. 이곳은 이웃 교구에서도 해마다 순례를 오신다고 합니다.
4. 2월 미사에서는 초 축복식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5. 3월 미사는 3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성당에서 봉헌합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2월 공동체 미사는 2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봉헌했습니다.
4. 3월 공동체 미사는 3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봉헌할 예정입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2월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미사는 2월 9일(토)에 설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미사 후에는 구정을 맞이하여 떡국 파티와 윷놀이를 하였습니다.
2. 공동체 기도모임은 3월 1일(금) 오후 5시에 최한우(바오로), 김혜경(아그네스) 가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3. 3월 미사는 3월 9일(토) 오후 5시에 Pernickelmühle 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배성우(도미니코)	
			부회장	권지연(안드레아)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올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민음의 샘 C.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이순자(마리아)
	평화의 모후 P.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 (정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구역장	김매자(베로니카)		
		총무	신옥희(비아)		
	2구역	구역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구역장	김형웅(야고보)		
		총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구역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준병(바오로)		
		부회장	강새벽(에스텔)		
		총무	한승종(스테파노)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은희(안나)	
여성 봉사회			실무 책임	김매자(베로니카)	
				이정옥(크리스티나)	
				허명자(가밀라)	
				심은희(안나)	

3월 중 행사 예정표(성 요셉 성월)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금	삼일절		
2	토			브레멘 공동체
3	일	연중 제8주일	사목월례회	
4	월			
5	화		믿음의 샘 뿌리아	
6	수	재의 수요일	19시 미사	만남성당 강당
7	목	재의 예식 다음 목요일		
8	금	재의 예식 다음 금요일	2구역 소공동체	
9	토	재의 예식 다음 토요일		오스나브뤼크
10	일	사순 제1주일	청년 소공동체	
11	월			
12	화			
13	수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14	목			
15	금			
16	토			하노버 공동체
17	일	사순 제2주일		
18	월			
19	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20	수			
21	목	춘분		
22	금			
23	토		아치에스(15시 미사)	
24	일	사순 제3주일	찬양미사	
25	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19시 대축일 미사	
26	화			
27	수			
28	목		연령회	
29	금			
30	토			오슬로 공동체
31	일	사순 제4주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
 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
 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넷째 금요일 16시 00분(4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